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천 년 걸린다

감로를 먹고 살면 천 년 이상 살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말씀드리자면 인류 역사 육천년대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영생의 역사 마무리가 칠천 년대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천 년대부터 전 세계 인류가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칠천 년이 되려면 앞으로 천 년 가까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고 나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감로이슬을 받는 사람들은 죽을까, 안 죽을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나 감로이슬이 가는 거지 감로이슬 그 비싼 게 아무한테나 안 가요. 마음에 확신이 차 있는 사람, 매일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이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객쟁이라고 그랬던 거야. 아무나 그렇게 걸레조각처럼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주고,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날아다니는 몸으로 변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다 해서 생활을 하면 반드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 이루어지면 이런 인간의 몸이 변해요. 똥 오줌 누는 그런 인간이 아니예요.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그런 몸이 아니예요. 날아다니고 맘만 먹으면 별나라 가는 데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야. 일 초도 안 걸려. 똑딱 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빨라.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했죠. 산소 속에 있는 중성자가 이 세상에 빛보다도 억만배 빠른 속도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 그

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바이오트론이라는 그런 물질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야. 그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몸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서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이 죽기 때문에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간다는 게 개소리일까, 사람소리일까? 그게 개소리야. 그러기 때문에 영이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이비 종교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신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바로 중성이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 오래 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중성이 되어 버렸어. 중성자로서 완성이 되었어. 인간이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 몸으로 변해서 왔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시키는 대로 살면 죽게 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면치러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은 이제 버려요.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못하면 그날 밤을 못 먹는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의 복을 못



조지 부시 대통령 초청 만찬회에 참석하신 구세주 조희성님(좌측)

받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이 겉으로 웃을 근사하게 입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사람의 모양 이게 마귀야. 마귀 모양이야. 남자가 바로 마귀 모양이야. 마귀, 마귀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나라의 의식이야. 나라의 의식, 선악과를 먹은 게 탄 대 간 게 아니야. 똥이 되어서 나간 게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선악과야.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바로 선악과를 꼭꼭 먹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반대생활을 해야 이긴자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밀실에서 연단 받을 때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였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긴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반대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을까, 이 사람이 연구해서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고기반찬이랑 이렇게 같이 놓고 밥을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잖아. 고기 안 먹어. 씹바귀 쓴 거, 그 쓴 거 먹어.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왜 고기를 안 자십니까? 그 쓰디쓴 씹바귀를 자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나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고,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마귀 새끼한테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마귀를 잘 속여야 이긴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어. 마귀를 제대로 속이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반대생활 했던 거야. 그렇게 일을 하면 일하기 싫을까, 일하기

좋을까? 싫죠. 일하기 싫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힘이 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나오, 안 나오? 쉬고 싶은 생각이 나면 안 쉬어. 하루종일 해가지도록 계속 해서 컴컴해지도록 일을 하는 거야.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졸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울에 찬물로 목욕했던 까닭이 뜨뜻한 물로 목욕하고 싶을까, 찬물로 목욕하고 싶을까? 따뜻한 물로 하고 싶으니까 찬물로 한 거야. 이렇게 반대 생활 했어. 반대생활, 전도하기 싫으면 악착같이 맹기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관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수천 명을 전도했어. 그런 반대 생활을 전도관 때부터 했던 거야. 장기간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긴자의 뒤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게 자유롭잖아. 반대생활이,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길이 참 가지 힘든 길일까, 가지 쉬운 길일까? 힘든 길이지. 영생 얻기가 힘든 거야. 힘들어야 그게 정상이지. 쉬우면 그게 정상이야,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돈도 주고 그랬던 거야. 내가 돈 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아까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주는 거야. 현금하려면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아깝지. 그러면 몽땅 끌어서 바치는 거야. 그게 바로 영생 얻는 방법이야. 그게, 아시겠어?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승리제단에서 발을 뺐니까 이제 현금할 필요가 없죠? 승리제단이 하

나의 제단이야, 여섯 사람 명의로 해놓으니까 여섯 사람 제단이야? 하나님 제단 이죠. 하나님 제단이야. 그러니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아예 영생 얻는 걸 포기하세요. 못 얻어. 암만 여기서 나와 봐야 소용없어요. 희생적인 생활이 있어야 영생을 주지, 하나님은 희생적인 생활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기울였느냐? 이게 바로 영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길은 그렇게 허술한 길이 아니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생을 얻는 길, 그런 길이 아니예요. 이 길은 희생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어요.

이 사람이 7년간 긴 터널을 걸어왔기 때문에 피로할까, 육적으로 안 피로할까? 육적으로 피로하죠. 그래 오늘날 단에 서고 얼마 동안 단에 못 섭니다. 이 사람이 좀 쉬어야죠. 힘을 보강하고 한 다음에 단에 설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안 보이면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선 거예요. 서고서 30분만 말한다는 게 지금 한 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로하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지 일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기울인다면 하늘의 뜻은 금세 이루어져요.*

2000년 8월 16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10) 아브람의 환상 (11) 아브람의 아내 사래와 여종 하갈

(10) 아브람의 환상

아브람은 양을 치면서 다시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람이 천막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는 멀리 앉아 커다란 선물을 나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쓸쓸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신들 저는 그것을 물려 줄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브람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에 자신의 종들 가운데 블레셋 출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람의 이런 복심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장자 장자상속하게 될 것을 미리 막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장자 셈의 혈통이 아브람으로 통해 순수하게 이어지게끔 예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창9:26-27).

창세기 15장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데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오니

3절: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그런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리.”

하나님은 아브람을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을 다 세어 보아라.”

“저는 저 별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 하늘의 별만큼 네 자손들도 이 땅 위에 가득히 넘쳐 날 것이다.”

그제야 아브람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계속하여 “나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와 이 땅을 주려고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소리쳐 말했습니다.

“오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이 때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짐비둘기로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제단에 쌓았더니 솔개가 내려와서 새끼 짐비둘기를 쫓아 먹으려는 것을 아브람이 쫓아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별만큼 네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_ 창15:5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이윽고 해가 저문 다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들어 버렸을 때 갑갑한 아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앞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부려먹고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괴롭힌 그들에게 공중의 악신이 재앙을 내릴 때에, 그들은 나 여호와와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리라. 400년의 종살이

기간이 지나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네 자손들은 죄악관영(罪惡貫盈)한 아모리 족속의 땅(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래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급의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자손이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풀무가 보이며, 활활 타는 횃불이 제단 위 제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불덩어리와 같은 빛의 신이며 왕래하는 당신 주변에는 언제나 연기 구름 같은 광채로 환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저서 어둡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래가 몸종 하갈을 아브람의 침소에 놓다

(11) 아브람의 아내 사래와 여종 하갈

아브람 85세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래 75세가 되도록 수태하지 못하자, 사래 자신은 아이를 영영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람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람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 사래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라고 멸시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창세기서 16장 5절에, 사래가 남편 아브람을 원망하면서 몸종 하갈로부터 학대받는 일을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쓰어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6절에는 남편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기를 “몸종 하갈의 주인은 당신이고 당신의 수중에 있음으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몸종(여종)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 학대로 말미암아 몸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하였다고 성경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16장 5절과 6절은 그 당시 있었던 사건과 전혀 반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람의 본처 사래가 여종에 의해서 내쫓김을 받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게 되면, 아브람의 명철함과 의로움에 오점이 생길 것으로 여겨 역사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브람의 본처 사래는 그 성품이 모질지 못하였습니까. 마음씨가 아름다웠기에 그 생각에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사래 여인은 몸종 하갈한테 꾀박 받는다 하고 남편 아브람에게 일러바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여종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사래 자신은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안함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꾀박을 마땅히 치러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엘라